

권오성 대장 육군참모총장 취임식



△권오성 대장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육군기를 받고 사열을 받고 있다.



△연희장에서 축진 방문단과 기념촬영.(좌로부터 추밀공과파 병선 참화공 회장, 영빈국장, 준시 정현공회장, 오현이사, 영한 동파 고문, 핵속대중원 상임 부총재, 오성총장 및 가족, 영선대중원 부총재, 영결 안숙공 회장)

지난 9월28일 오후 2시 계룡대 대연장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 각군 총장 및 한.미연합사 고위장성이 배석한 가운데 권오성 육군참모총장(35세 추밀공과파)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임석상관이 되어 국기에 대한 경례로부터 애국가 제창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명령낭독, 군기이양 후 신.구입총장 사열과

신임총장 취임사, 열병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공식의전행사를 마치고 대연회장 부근 벽전호수 앞에서 축하 가든파티로 이어졌다.

이날 권문(權門)에서는 권혁승 안동권씨대중원 상임부총재(추밀공과파회장)를 비롯 권영선 대중원 부총재(대한상운회) 파친종회장에서 권준식 정한공회장, 권병선 참화공회장, 권영결 안숙공회장, 권영민 사무국장 등 그리고 총복을

성 문중에서 권영환 추밀공과고문, 권오현 파친등이 참석하여 신임 오성총장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취임식에 참석한 회장단은 오성(五歲)총장이 최강의 육군으로 거듭 태어나 나라와 권문에 큰 업적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의성군 종친회 임원 단합대회

지난 9월 29일 의성군 종친회(회장 권오열) 고문단, 회장단, 운영위원 67명은 (주)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초청으로 관광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울산 보라 골프장을 방문하여 풍성한 집대를 받고 수건, 우산과 여비 200만원까지 받았다.

특히 권홍사 회장은 사업상 바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하여 축진들이 이곳까지 찾아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고향인 의성 종친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격려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양산 통도사와 김해 봉하마을도 견학하고, 도리원 한우마을에서 저녁 식사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울산 골프장에서 오찬에 앞서 권홍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일 협찬한 분(안계 삼성연합의원 권순호 원장, 권용자, 권경남, 점곡 화수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권홍사 회장의 동생인

권혁은 회장(일신건업, 아이에스동서)은 종친회 발전기금으로 3백만 원을 협찬하여 감사를 드린다.

〈의성 권오열〉

울산종친회 양촌선생묘소참배



△울산종친회가 음성 양촌선생 3대묘역을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종친회는 지난 10월 6일 권오영종친회장 및 10개지역 친목회 일 약80여명이 관광버스 2대로 충

북 음성군 생곡면 능안마을에 위치한 양촌공(권근의 3대 묘역)을 참배하였다.

〈권영목 총무부장〉

권혁환 종친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출정식이 시작되었으며 권오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울산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친목회원들의 협조와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오늘 양촌선생의 3대 묘역참배를 계기로 울산종친회원간에 화합과 단합을 강조 하였다.

능안마을에 도착하여 문충공중 사무국장의 안내로 제례를 올리고 3대 묘소를 참배한후생곡면 관성리에 위치한 큰바위굴 테마파크 조각공원을 관광하였다.

다음으로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에 있는 반기문 생가를 방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늘 행사에 대한 결산보고를 한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권영목 총무부장〉

영천청년회는 6일 오전 8시 30분 회원 30여명이 관광버스편으로 안동 태사묘를 탐방했다.

이날 권순호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등 권혁환 총무의 인솔로 오전11시에 태사묘에 도착해 남정순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물각을 관람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귀로에 올랐다.

〈권혁세 기자〉



△영천청년회가 안동태사묘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천 임란창의기념관과 의령 충익사

■ 과운 권해조

〈지남호에 이어〉

망우당은 1552년 경남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외가에서 황해도 감사를 지낸 과월의 셋째아들로 출생하였다. 세 살에 모친을 여의고 퇴계선생 4촌 처제인 새이머니 밑에서 자랐다. 남명 조식선생 밑에서 공부하면서 16세 때 남명 외손녀와 결혼하였다. 1585년 34세에 별시에 합격했으나, 왕의 뜻에 어긋난다하여 무효가 되어 누시로 소임을 하다가 임진왜란을 맞았다. 1592년 4월22일 세간리 마을 느티나무에 북을 매달아 치면서 의병을 모집했는데 이것이 의병의 출발이었다.

그해 5월에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거름강(岐江) 전투에서 첫 승리를 하고 6월에는 정암진 전투에서 대승을 하였다. 그는 스스로 천강홍의장군이라 부르며, 여러 장수에게 붉은 옷을 입혀 자신을 기만하고 신출귀몰하면서 조총 사거리를 피하여 화살로 적을 무찔렀으며, 진주대첩과 1597년 정유재란 때도 창년 화왕산성 전투에서 대승하였다. 장군은 41세에 첫 벼슬을 한 뒤에 진주목사, 한성부윤, 함경관찰사 등 65세까지 관직생활을 했다. 사후에 병조판서, 지의금부도사에 추증되기도 했다.

필자는 이번 합천임란창의기념관과 의령 충익사를 방문하고 많은 것을 느꼈다. 첫째는 의병활동이 국가수호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

합천 임란창의기념관과 의령 충익사

■ 과운 권해조

〈지남호에 이어〉

시 확인하였다. 임란 전 정세판단과으로 전쟁대비를 못해 관군이 패전을 거듭하자 분연이 일어난 의병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의병정신 발로는 민족정기의 계승이었다. 의병들은 오직 국가를 위하여 맨 주먹으로 멸사봉공의 애국애족 정신과 지용을 겸비한 강간결의로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정의정신, 살신성인의 도의정신, 자율 자조의 창의정신들을 배울 수 있었다.

셋째는 임란기간 의병활동은 서부영남에서 중심지 이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명의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경상남도 병력이 1만여 명이나 되었고, 그 중심이 서부경남인 합천 의령, 거창지역이 중심이었다. 이는 합천창의기념관에 전시된 113명과 의령 충익사의 18인 장령들의 행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넷째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남명 조식, 래암 정인홍 선생의 참모습을 조명할 수 있었다. 조선조에 영남유학의 양대산맥인 강우(張右) 남명학과 강좌(張左) 퇴계학파간의 대립으로 오랜 세월 지탄을 받아온 남명선생과 말년에 영창대군 죽인 죄와 인목대비 폐출 죄를 뒤집어쓰고 지탄을 받아온 래암선생의 우국충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다섯째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역사적 교훈이다. 역사는 진실

과 정의, 그리고 선악(善惡)의 기준에 의해 반드시 재조명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이다. 따라서 역사는 반드시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바르게 가르쳐야한다.

결론적으로 합천의병창의기념관과 의령충익사 건립은 임란. 정유재란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의병들의 활약상을 널리 전하고 후손들에 애국심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선대들이 남기고 간 아름다운 유산과 위대한 애국충절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과 향토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두 곳의 임란기념관을 탐방하여 잠시 선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동족상잔의 6.25 전쟁 정전 60주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일본의 움직임이 임란전이나, 노일전쟁 직전과 유사하여 나라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다. 의병들의 애국정신, 살신성인정신을 받들어 후대들은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애국하는 길이며,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국가안보의식을 높이고 의병정신과 민족정기를 계승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조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선열들에게 머리 숙여 명복을

바란다. (끝)

釜山宗親會 權英鎬 副會長

부산광역시종친회 권영호(權英鎬) 부회장은 지난 9월30일 부산롯데호텔 3층아트홀에서 허남식부산시장 경남부지사 새누리당 부산시장 유재중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권철현(權哲賢) 고문(세종문화재단이사장)과 권

길상(權吉相)부산종친회장을 비롯한 여러부회장 그리고 在釜 전 지역 향우회장 및 500여향우가 참석한 가운데 在釜山 慶南鄉友會長協議會 제3대회장으로 취임했다.

권영호 부회장은 현재 주식회사



대한철강(大韓鐵鋼)을 경영중이며 뜻한 아름다운 부산시 가꾸기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부산종친회에도 물심양면으로 협조의 축가 나쁘다. 〈권용섭 사무국장〉



미국, 유럽에 이어 연말까지 독립국가연합, 중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 출시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OLED TV와 UHD TV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차세대 TV 시장의 패권을 다룰 것"이라며 "LG전자는 OLED TV를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조기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고, UHD TV 모델 확대와 차별화된 스마트TV 서비스를 내놓아 주도권을 굳히겠다"고 밝혔다. 〈2013.9.9 동아일보 인용〉

OLED TV시장 주도권 굳혀

권희원 LG전자 HE사업본부장

권희원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기술을 선도하는 업체가 미래 TV시장을 이끄는 1등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베를린 가전전시회에서 세계 최대 크기인 77인치 초고화질(UHD) OLED TV를 선보이고 내년 초 출시를 선언했다. 권사장은 OLED TV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HD TV는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가 먼저 내놓았을 약 1년만에 중국 업체들 대부분이 UHD TV를 들고 나올 정도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UHD TV는 중국이나 일본, 독일 업체들 모두 만들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OLED TV 기술을 갖춘 곳을 한국 업체들뿐"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OLED TV기술을 따라오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릴것"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OLED TV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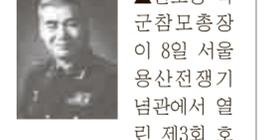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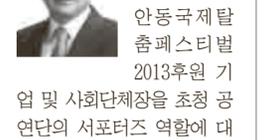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공판에서 열린 건국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권태오 중장(부호장공파) 제병지 휘관으로 박대통령과 함께 사열행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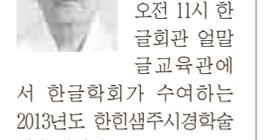
▲아웅산 추모비 건립위원장인 권철현 세종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아웅산순국 의사결정위령탑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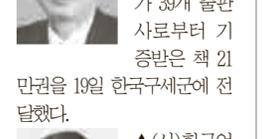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8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호국미술대전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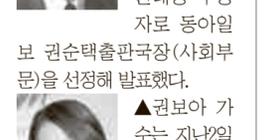
▲권영세 안동시장은 23일 오후 6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3후원 기업 및 사회단체장을 초청 공연단의 서포터즈 역할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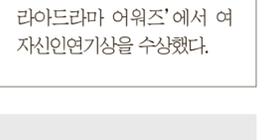
▲권재선(79) 대구대 명예교수는 9일 오전 11시 한글회관 열말 글교육관에서 한글학회가 수여하는 2013년도 한한샘주시경학술상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민)가 30개 출판사로부터 기증받은 책 21만권을 19일 한국구세군에 전달했다.



▲(사)한국언론인연합회는 7일 제9회 한국참언론인대상 수상자로 동아일보 권순택출판국장(사회부문)을 선정해 발표했다.



▲권보아 가수는 지난2일 오후 경남진주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코리아드라마 어워즈"에서 여자인연기상을 수상했다.

가정마다
宗보를 구독하여
뿌리를 알고
문중화합에
기여합니다.

慶 제26회 청·장년회 전국 문화축제 개최 祝

자랑스러운 권문의 변명과 화합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전국 청·장년들의 문화축제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오니 참가하는 시·군은 12월 31까지 참가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4년 4월 27일 10:00~16:00
·장 소: 뿌리공원 대광장 예정
·연락처: 청장년회장 권용기
·부회장 권중순 권용수 권용재
·준비위원장 권선상 사무국장 권영민
·접수처: 대전종친회 042-522-8751

서울산악회 산행 안내 제229차

■ 일 시: 2013년 11월 17일 오전 7시 40분(매월 셋째주 일요일)
■ 집결장소: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 등 산 지: 경북 봉화군 정랑산
■ 회장(권영석): 011-207-6549, 02)453-6549 ▲ 사무국장(경탁): 010-3796-4047, 02)963-5222
▲ 등반대장(오준): 010-3718-4204, (오익): 011-205-6134
※ 준비물: 간식, 물, 산행 필수장비, 물걸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mm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영석